

건축 3단체, 공동협의체 구성 추진

건축 3단체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하고 급변하는 국내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건축3단체 공동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협회 김규태 회장과 한국건축가협회 강석원 회장, 대한건축학회 이정덕 회장은 지난 5월 14일 오전 롯데호텔 피콕룸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시장개방 등 국내의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과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국내의 각종 건축공모전 및 전시·행사 문화사업 활성화 방안, 건축문화에 대한 홍보강화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3단체가 공동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모든 대내외의 장구를 일환화할 수 있는 공동협의체 사무실 설치 등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추진키로 결의하였다. 또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공동협의체의 정식 명칭이나 기구조직, 운영규정 등에 대해서는 우리 협회가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맡아 오는 6월 25일 3단체장 회동 때 상정,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사회 개최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제7회)가 지난 5월 14일 협회 중회의실에 개최되었다. 보고사항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7회

- 제1호의 안 : 건축정보센터설립 제1차년도 계획(안) 승인의 건
- 건축정보센터 설립 제1차년도 계획(안)중 인터넷 이용을 위한 전용회선 사용계약과 CUG 이용계약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전체 계

획(안)에 대해서는 이관영 이사가 위원장 합동회의를 통해 5월말까지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 제2호의 안 : 중국 및 일본대표단 초청계획(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함. (중국건설부대표단 7인과 일본건축사회연합회 대표단 2인을 초청기로 함)
- 제3호의 안 :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함('건설기술정보 유통사업' 출연금 2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함)

중·일 건축사대표단 우리협회 방문

중국 건설부 전국건축사관리위원회 Wu Yiliang 주임을 비롯한 7인의 중국대표단과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와타나베 국제위원장등 일본대표단 일행이 6월 3일과 5일 우리협회를 방문한다. 한·중·일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위해 6월 8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이들 대표단은 방문기간중 우리 협회와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두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지며 6월 5일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포스코센터 방문·견학한 후 오후 6시부터 팔레스호텔에서 한·중·일 대표단 간담회에 참석한다.

한편, 이들 간담회자리에서는 건축관련 기술정보의 교환을 비롯해 건축관련 법령 및 제도, 건축사 등록 및 상호인정 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의견들이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등록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세계 건축사들의 등록기준 및 자격증 인증제도에 관한 자료교환과 통일을 목적으로 창립된 건축사등록에 관한 국제회의에 올해 처음 우리 협회가 참가, 국내건축사 등록기준과 자격인증제도에 대해 국제적인 비교검토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리 협회 이근창 국제위원을 비롯한 대표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 에이에이에이 호텔에서 열린「건축사등록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세계각국의 대표단들과 만나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건축사 등록기준 및 자격인증제도와 관련한 자료들을 교환하고 돌아왔다. 이번 국제회의는 지난 70년 미국건축

사등록위원회와 영국건축사등록위원회가 공동 설립한 이후 올해로 6차회의째를 맞는데 회의기간중 '등록에 관한 상호원칙' 등 세계시장이 개방되는 시점에서 이와 밀접한 의제들이 토론으로 이어져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밖에도 세계각국의 건축사 등록요건이 수록된 「건축사실무기준」 제4집이 소개되기도 했다.

건설기술자경력신고 시도건축사회 실무자교육 실시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각 시도건축사회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자경력신고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도건축사회 총무과장 및 담당직원 등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는 건설기술관리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신고관련 규정, 기술인협회와의 분담업무내용, 신고관리업무 추진계획, 관련제시식의 종류 및 신고요령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초 건설교통부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거해 지금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통합관리해 왔던 건축사사무소 소속 기술인력인 건축사보 및 보조원에 대한 경력 관리 업무를 건축설계업무의 특성을 고려 우리 협회가 분담 관리토록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한편 협회에 경력신고를 해야 할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는 약 5만8천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중 기술계기술자격 취득자는 오는 96년 6월 30일까지, 학력·경력자는 9월 30일까지, 기능계기술자격 취득자는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본지 p. 126, 건설기술자경력 신고요령에 대한 안내문 참조)

강원도건축사회, 고성산불 재해 복구 지원에 나서

지난 4월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강원도건축사회(회장 김길창)가 회원들의 온정이 담긴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재해 복구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고 시름에 잠긴 이재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내외건축, 도원건축, 동부건

축 등 속초지역건축사회 소속 14개 건축사사무소는 산불 피해주택 복구시 무료로 설계를 하고 조만간 고성군으로부터 구체적인 복구계획이 통보되는대로 적극적인 복구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72개동 가운데 복구가 필요한 52개동 가량이 현지방문 후 건축주와의 직접 협의를 통해 무료설계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삼방건축, 건축법률 데이터베이스 개발

건축사업의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온 김규성(삼방종합건축 대표) 회원이 건축법률 데이터베이스 보급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중 설계의 컴퓨터의 효율적 이용방법을 찾기위해 건축법률 데이터베이스인 「건설법률백과 2.5」를 개발하게 됐다. 김규성 회장은 기존 서적식 건축관련 법규와는 달리 찾고자하는 단어하나만으로 원하는 법률과 법조문을 검색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제품의 특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김규성 회장은 앞으로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한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해 차차 인터넷을 이용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회원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제품구입 및 가입에 관한 문의는 삼방건축사사무소(전화 536-1434)로.

명동대성당 축성 100주년기념 설계공모 결과 발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축성 1백주년기념사업회가 지난해 8월 10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실시한 명동대성당 1백주년기념 설계현상공모 결과 당선작 없이 우수작과 가작 각 5점씩만이 선정되었다. 기념사업회측은 총 52작품이 참가한 이번 설계공모에서 1단계 심사를 통해 입선작 5점과 가작 5점을 각각 선정하였으며 이후 입선작 5점을 대상으로 2단계심사를 벌인 결과 입선작 모두가 설계자 고유의 특성과 전

문성이 드러난 훌륭한 작품이라 판단돼 이들 5점 모두를 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설계공모에서 당선작이 나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출품작품들이 한국 가톨릭교회의 신앙의 요람이며 200년 한국 가톨릭교회 역사의 성지로서 명동성당을 표현하는데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계공모 입선작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5월20일 오전 11시에 명동성당 본당1층 만남의 방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설계경기의 입선자는 다음과 같다.

- 우수작 : 김종규(M.A.R.U건축), 유걸(유걸건축), 윤응원, 이종상(이태아건축), 폴로(해외)
- 가작 : 서혜림, 손학식, 이종호·양남철, 임재용, 최두호

장건축, 충남대국제문화센터 설계공모 당선

충남대학교가 지역사회 예술문화공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목적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 국제문화센터 현상설계에서 장건축(대표 오택길)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총6개 작품이 출품한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에는 대전의 동인건축사사무소(대표 유장렬)안이, 가작에는 혜원건축(대표 서진철) 두가 건축(대표 신창섭)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본지 현상설계란 참조)



당선작 투시도

올림픽기념관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성달)은 지난 5월 21일, 올림픽공원내에 신축예정인

올림픽기념관 현상설계공모의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세계속의 한국으로 응비하는 계기가 되었던 서울올림픽의 영광을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실시된 이번 현상설계공모에는 총 13개 작품이 응모, 이들 작품중 회림종합건축(대표 이영희)안이 최우수 당선작에, 우수작에는 예도건축 안 그리고 모양건축, 김상경건축, 건축사사무소 모람 안이 각각 당선되었다. 당선작에 선정된 회림건축 안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삼각형태의 건물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지하 1,2층에 각종 생활체육시설, 지상 1층과 2층엔 자료실과 올림픽기념관이, 3층엔 체육발전시설이 들어서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편 공단측은 설계설명회 및 자문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를 확정하고 시공업체를 선정, 오는 99년 중반에 기념관을 완공할 예정이다.

「'96 상해 주택설계 교류전」 행사안내

중국 상해시의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96 상해 주택설계 교류전」이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상해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상해시가 향후 2010년까지 진행될 9차 5개년개발계획 기간동안 연간 9백만평 방미터의 주거공간을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 현재의 낙후된 설계와 시공기술로는 거주자의 실요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준비해 온 행사로 특히 근린주거의 효율적 개발에 필요한 참신한 계획과 설계를 제공할 세계각국의 건축가들을 유치, 이들 참가자들에게 전제적인 도시계획과 더불어 개별 건축물의 설계권을 부여할 목적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협회나 단체, 회사(건축사사무소) 또는 개인자격 등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신청희망자는 참가신청서 및 등록서류를 구비해 참가비 미화 1천달러와 함께 6월 5일까지 조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조직위원회가 심사후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공식참가 통보와 함께 다양한 행사관련 정보를 보내주며 또 정식 참가통보를 받은 자에 한해 6월 25일까지 폼페신청서를, 8월 25일까지 작품 및 보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이들 제출 작품 및 보고서를 검토해 그중 20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 당선된 건축가에게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상해 월드필드 컨벤션 호텔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공식 초청하는 한편 시상식을 통해 설계인정서 및 상장과 부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기타 이번행사의 자세한 행사일정 및 행사내용, 연락처 등은 다음과 같다.

- 주요 행사내용 및 일정
 - 등록마감 : 1996. 6. 5
 - 폼페신청서 제출시한 : 1996. 6. 25
 - 작품 및 연구보고서 제출시한 : 1996. 8. 25
 - 국제회의 및 시상식 : 1996. 10. 15 ~ 18
 - 국제전시회 : 1996. 10. 17~19 (예정)
 - 주택관련 공청회 : 1996. 4. ~ 9.
- 참가신청 등록서류
 - 자격증 사본
 - 신원증명서
 - 참가자 프로필 (회사브로슈어, 개요)
 - 참가신청서 및 참가비(미화 1,000달러)
- 시상내역
 - 1등 (1명) : 미화 3만달러
 - 2등 (2명) : 각 미화 1만2천달러
 - 3등 (3명) : 각 미화 8천달러
 - 장려상 (14명) : 각 미화 4천달러
- 주관처 : 상해 국제 주거건축설계교류전 조직위원회
 - 주소 : No.2 , Lane 36 , Yude Road, Shanghai 200030 CHINA
 - 전화 : 0086-021-64386985, 0086-021-64389750×151,156
 - 팩스 : 0086-021-64388352
 - E-Mail : srd2000 @ siit. intnet. co. cn
 - 문의사항 : Ms. Gu qihui, Ms. Diao Haiyan

현실비평연구소, 제1회 청년작가실험전 개최

현실비평연구소와 금호미술관이 공동주최하는 제1회 청년작가실험전이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19일까지 서울과 대전, 마산에서 세차례에 걸쳐 순회 개최된다. '개발금지구역'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

는 현실비평연구소와 금호미술관이 공동선정한 30대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대상작가전과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할 초대작가전으로 구성되며 전시기간중에는 관람객과 작가가 만나는 크리틱 및 설명회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건축 등 일정한 주제를 매개로 본격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많은 대중과 문화영역에 건축정신을 확산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일은 서울의 경우 금호미술관(전화 720-5866)에서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대전은 중구문화원(042-256-3684)에서 7월 5일부터 11일까지, 마산은 경남건축사회관(0551-46-4530)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공·휴일과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린다. 전시회의 참여작가 명단과 작품명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실비평연구소(전화 304-6539, 376-7775~6)로 문의하면 된다.

- 대상작가
 - 강일원(의전·동인건축사사무소 대표) / 스크린에 갇힌 콘텍스트
 - 권육기(A+C건축연구소 대표) / 境界?, 警戒!
 - 신상호(마인건축 대표) / 육감, 철감, 페스티발 = 통행인
 - 정용섭(4D디자인연구소 소장) / 일문일답
 - 조권섭(현실비평연구소 수석연구원) / 섹스화된 신체
- 초대작가
 - 곽재환(맥건축 대표) / SPACE
 - 신일섭(카툰리스트, 만화가) / STATION
 - 이종상(이데아건축 대표) / 무제
 - 최정화(가슴시각개발연구소) / 쓴설탕, 달콤한 소금

제7회 김수근문화상 수상자 발표

제7회 김수근문화상의 부문별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김수근문화재단(이사장 이경성)은 지난 5월 15일 김영섭, 오수환, 이진용씨 등 6명을 올해의 김수근문화상 수상자로 선정 발표하였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김수근문화상은 타계한 건축가 김수근

선생의 뜻을 기려 한국문화발전에 공헌해 온 각 분야의 문화인들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해 왔는데 오는 6월 14일(금) 오후 5시 공간사옥 정원에서 있을 올해의 시상식에서는 '카톨릭대 성신교정 도서관 및 강의동'을 설계한 김영섭(건축문화설계연구소 대표)씨가 건축상을, 오수환(서울여대 교수)씨가 미술상을, 이건용(한국예술종합학교 작곡과 교수) 홍신자(웃는돌 스튜디오 대표) 이승규(인천시립극단 예술감독) 유인촌(극단 '유' 대표)씨 등 4명이 공연예술상을 각각 수상하게 된다. 한편 김수근문화재단에서는 김수근 선생 10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건축전시회 및 세미나를 6월 3일부터 14일까지 공간사옥에서 개최한다. 건축전시회 및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 사무국(전화 743-728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전시회 : '96. 6. 3(월) ~ 6. 14(금) (전시회 오프닝 : 6. 3(월) 16:00)
- 세미나 : '96. 6. 3(월) ~ 6. 13(목) 17:00
- 6월 3일(월) / 무제 / 윤승중(원도시건축)
- 6월 4일(화) / 지혜의 시대 우리의 건축 / 민현식(이로재)
- 6월 5일(수) / 나의 건축의 한국성 그리고 세계성 / 류춘수(이공건축)
- 6월 6일(목) / 벽돌문화의 사상 / 김원석(시원건축)
- 6월 7일(금) / 시간에 대하여 / 이종호(메타건축)
- 6월 8일(토) / 빈자의 미학-마산성당과 돌마루 공소 / 승효상(이로재)
- 6월 9일(일) / 건축의 객관성과 건축가의 자의성 / 유결(유결건축)
- 6월 10일(월) / 김수근건축의 일본적 영향에 관해서 / 김원(광장건축)
- 6월 11일(화) / 건축의 생명 / 오기수(스페이스5)
- 6월 12일(수) / STRATA-時の積 / 장세양(공간건축)
- 6월 13일(목) / 한국 현대건축의 또 다른 지평 / 박길룡(국민대학)

제5회 태양열건축설계공모전 입상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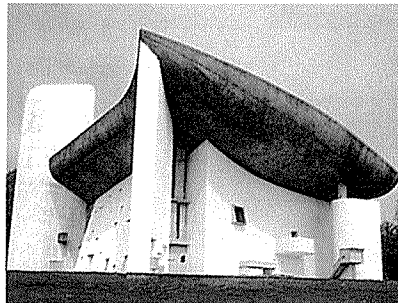
한국태양에너지학회(회장 이경희)가 건

축분야에서의 환경친화적 건축개념을 적극 유도하고 21세기 한국건축의 주역이 될 건축전공 학생들에게 자연에너지 이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실시한 「태양열건축설계공모전」에서 이상윤(연세대 건축공학과 4년)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공동주택」이란 주제로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128점이 출품되어 이중 최우수작 1점과 우수작 4점, 가작 5점 등 총 78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의 입상작들에 대한 전시회가 지난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포스코센터 2층 전시실에서 개최되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건축분야에서의 자연에너지 이용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 주었다.

르 꼬르뷔제 작품전 열려



릉상성당

「릉상성당」등 건축사에 기록될 유명작품들을 남긴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르 꼬르뷔제의 작품세계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지난달 10일부터 6월 6일까지 서울 소격동 아트스페이스서울과 관훈동 학교재에서는 르 꼬르뷔제 작품전이 열려 유희와 타피스트리, 건축드로잉, 과슈 등 1920~50년대에 제작된 르 꼬르뷔제의 작품 50여점이 전시되어 전시관을 찾은 많은 건축인과 학생 그리고 미술애호가에게 직접 체험의 기회를 안겨주었다. 특히 이날 전시회에서는 산업사회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순수주의 계열의 대표적 회화작「세워진 기타(1920)」를 포함해 「릉상성당」, 「찬디 가르 열린 손」, 「파리대학 스위스관」등 다양한 건축드로잉과 마르세이유의 위니테 다비타시옹 평면·단면도 등이 함께 선보여 르 꼬르뷔제의 건축적 아이디어가 회화와 깊

이 뿌리를 함께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조인숙 엮음, 「음에공간예찬」

미, 일, 영국 등 각국 대학의 건축학대학원에서 설계 및 일본건축사의 교재로도 채택되고 있는 다니자키 준이찌로의 「음에공간예찬(陰昧讃)」이 조인숙(다리건축 대표)씨 엮음으로 도서출판 발언에서 발행되었다. 이책의 작가 다니자키 준이찌로씨는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예술원·아메리카 문학예술 아카데미 명예회원으로 활동했으며 풍려한 관능미와 음예있는 고전미의 세계를 전개하여 일본 문단의 초고봉을 걸어 온 인물이다. 그는 이책에서 서양 문물에 밀려 침몰되어가는 일본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어 우리의 전통건축을 아끼는 많은 건축인과 독자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될 것으로 본다. (도서출판 발언 발행/ 106쪽/ 가격 5천원)

